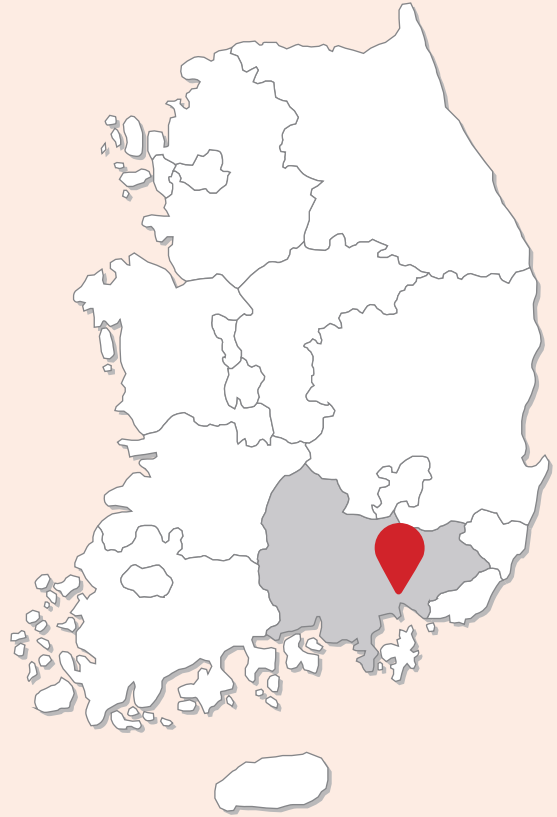


“최신 교육 이슈와 다채로운 사례에 눈길”

거주지	경남 창원시 상남동
구독 기간	2년
자녀	중3



독자에게
물는다

취재 김기선 리포터 quokka@neel.com

〈내일교육〉을 어떻게 구독하게 되셨나요?

입시 설명회에 다녀온 지인이 〈내일교육〉을 소개해줬어요. 아이들 교육에 관련된 다양한 기사를 접할 수 있어 좋더라고요. 막상 구독해보니 내용이 너무 알차서 만족하고 있어요. 입시 변화와 학습법 등을 쉽게 이해하게 되었어요.

주로 눈여겨보는 기사는 무엇이며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요?

주로 ‘위클리 테마’ 기사를 읽어요. 화제가 된 교육 이슈를 많이 다뤄 자연스럽게 눈길이 가요. 인터넷 뉴스와 다르게 실제 학생들의 사례와 인터뷰에 기반한 내용이라는 점이 마음에 들어요.

둘째가 내년에 고등학교에 입학하는데, 새로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독자가 뽑은 베스트 기사



궁금해요. 과목 체계가 다르다고 하는데, 무엇이 달라지는지 미리 살펴보고 싶어요. <내일교육>과 함께한다면 고등학교에서 배울 과목을 미리 파악하여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일교육>이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기사가 있다면요?

학생들 눈높이에 맞는 직업 소개요. 현재 각 산업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직접 듣는, 전망이 좋은 세부 분야와 직업에 대한 정보가 필요해요. 아이들이 학과를 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ⁿ



1126호

김한나의 이슈 콕콕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 논란

“노인 무임승차 폐지 논란 기사가 재밌었어요. 그동안의 혜택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에 크게 공감이 되었죠. 논쟁이 된 우리 사회 문제를 설명해주고, 정확하게 짚어주니 쉽게 이해가 되었어요.”

Reporter's A/S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기존보다 과목 체계가 더 세분화되어 있어요. 아직 1년이 남았지만, 주요 교과와 교육과정 편성과 새 과목 체계에 따른 위계도 같이 살펴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본지 1125호
'중등교육과정연구회_2022 개정 교육과정 분석' 기사 참조



인터뷰에 응해주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일교육> 편집부입니다.” 어느 날 불쑥 전화를 받는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평소 느꼈던 아쉬움이나 칭찬하고 싶은 내용들을 솔직하게 전해주세요.



1136호

WEEKLY THEME_ 내신 VS 수능 최적의 균형점은?

“학생들이 자주 하는 고민이 기사로 나와 반가웠어요. 학교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수능 대비와 맞닿아 있다는 점과 학교마다 차이가 있지만 내신 시험이 수능 범위를 포함한다는 내용이 기억에 남아요.”